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그 자리에서 본성을 보라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5월 9일 망심(妄心)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선(禪)입니다. 그 자리에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定)입니다. 이것이 선정(禪定)입니다. 돈오(頓悟)는 찰나에 무명을 다 끊어 단박에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돈오는 무념을 종(宗)으로, 청정을 체(體)로, 지혜를 용(用) 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무념, 무심은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도 일체 동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무념, 무심, 보리, 열반, 해탈, 견성, 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중도, 돈오라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합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또한 중도를 일컫습니다. 선가에서는 쌍차쌍조(雙遮雙照)라고 합니다. 일체 것을 다 부정합니다. 텅 비어 비어있다는 그 자체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 ‘금강신품’에 ‘이 마음자리는 밝고 밝아서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늘 깨어 있음이 행복

도현 스님(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5월 2일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은 자신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고쳐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안팎이 만날 때 원만한 인격이 점진적으로 갖춰져 우리는 행복해 집니다. 그리고 화두를 앞세워 놓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려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일을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행복감이 차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그 마음 바탕에 ‘이뭣꼬, 이뭣꼬’ 알 수 없는 의심을 꼭꼭 챙겨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자연스럽게 하다보면, 화두를 또박또박 챙기는 마음이 일상생활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뭣꼬’ 하는 알 수 없는 의심이 바탕을 이룬 곳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든지 성불하는 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두를 들고 늘 깨어있는 그 자체를 행복하게 누리세요.

‘아만 버리기’로 공부시작

현웅 스님(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

4월 25일 참으로 큰 법문은 법상에 있는 법사에게 듣는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야기 할 때나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믿음이 없을 때는 스승의 법문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지만 믿고 난 뒤부터는 하찮은 말이라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없애 버리고 아만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만이 없어지니 마음속의 불성이 되살아나 의심이 생기고 화두를 들면 의심이 끊어져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기에 생활 속에 불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불법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매일 새롭고 생활의 변화가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20년간 여러 선방에서 수행을 했고 이후 이후 서양에서 20년간 포교하며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문명사회에서 불교가 필요한지 확연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방향도 없이 물질문명의 그림자를 좇고 있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물질에 대한 회의로 그 해답을 불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원장 초청대법회’ 법문핵심

조계사와 현대불교신문이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조계사에서 봉행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가 사부대중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회향됐다. 총 12회에 걸쳐 연인원 3만여명이 동참한 이번 대법회는 간화선에 대한 불자들의 요구와 갈증을 동시에 보여준 의미있는 불사로 평가받고 있다. 선원장 초청법회의 성공적인 회향을 계기로 선원장 스님들의 주제별 핵심법문을 다시 들어본다. 아울러 간화선의 정체성 확립과 선풍진작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좌담과 대중의 평가 및 개선점 등을 결산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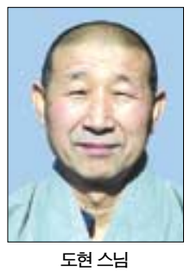
설정 스님

도적이 주인 될 수 있나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4월 18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몸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주인공, 법문을 들을 줄 알고 눈을 뜰 줄 알도록 하는 소소영영한 그 기운이 내 마음의 주인공일진대 주인을 내버려두고 감정이 하자는 대로, 도적놈이 주인노릇 하도록 가만두어서는 안됩니다.

화두 드는 수행자는 왜 뜰앞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조사관을 타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두 조사관을 타파하고 도를 깨닫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하는 도중에 뭐가 나타나거나 뭐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화두를 등불 · 스승으로 삼고 화두에 의지해서 망상번뇌에 속지 않고 살아가 보세요.


도현 스님

망상 놓으면 본래 부처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4월 11일 화두를 잘 든다는 말은 성성(惺惺, 지혜의 측면) 적적(寂寂, 선정의 측면)한 가운데 화두의심이 간절하게 뭉쳐 있어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화두 의심은 큰불덩어리 같아서 큰불덩어리에 나비나 벌(망상)이 접근 할 수 없는 것처럼 간절히 의심하는 가운데 망상은 저절로 쉬어지게 되어있는 가장 힘 있는 수행법이 간화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신심, 큰 발심(분심), 큰 의심(화두의심)을 위해서는 일상의 삶이 무아, 공, 연기의 이치를 잘 알아 자기(에고)를 비우고 자비심과 소욕지족으로 용심(用心)을 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망상만 놓아버리면 본래부처라.

망상을 따로 버리려고 하지 말고 화두만 챙기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하루 1시간씩이라도 간절하게 하면, 점점 시간을 늘려 가며 간절히 하다보면 나중에는 빨래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다 됩니다. 그러면 화두를 착 드는 순간에 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마음의, 진리 생명의 힘으로 사니까 나날이 좋은 날이 됩니다.

현웅 스님

고뇌 클수록 믿음도 커져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3월 28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我)는 존재론적으로는 연기하기 때문에 무아이지만 여기서는 마음이요 불성이자 선(禪)입니다. 마음을 밝혀서 알고 보면 마음이란 원래 밝아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원적으로 이 ‘부처 마음’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마음을 밝히기 전에는 윤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석에서 금을 제련하는 과정이 참선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큰 믿음을 내야 합니다.

이 대신근(大信根)이란 선지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지식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점검함으로써 확철대오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혜국 스님

지환 스님

영진 스님

눈앞에 있는 것이 ‘도리’

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3월 14일 이 공부를 하려면 첫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얽히고 설켜 한 찰나간에 수많은 생사를 짓습니다. 한 찰나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탁~ 튕기는 순간을 말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한 찰나에 생각이 900번이나 일어났다 죽었다 합니다. 그러한 중생념을 다 비우고 비워야 되는데, 그걸 다 비울 것 같으면 본래 물질도 물질이랄 것이 없고 마음도 마음이랄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참 법계인 내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도라는 것은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화두 들면 가능합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이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큰 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가짐,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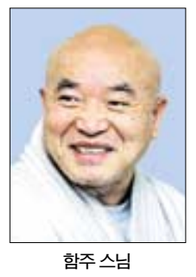
진실해야 ‘대 인격인’

함주 스님(법주사 총지선원장)

3월 7일 개개인 마음에는 무한한 힘과 법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허송세월해왔습니다. 때론 축생도 되고, 때로는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고. 사실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자기 마음에 다 있는데요. 때로는 축생도 지옥도 인간세계도 만들지만, 마음이 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안 그렇습니다. 허망된 경계에 의지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장 스님

현산 스님


함주 스님

대원 스님

무여 스님

고우 스님

간화선을 하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공부)은 최상승인이 아니면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상승인을 우리말로 하면 ‘대(大)인격인’입니다. 먼저 대 인격인이 돼야 합니다. 인격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것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참선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어려운 겁니다. 수승한 근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진실해야 합니다. 가장 진실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禪에는 방편이 없어

대원 스님(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2월 29일 ‘어떤 것이 선이냐’. 그것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찬풍음로(餐風飮露)’라. 바람을 먹고 이슬을 마신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우리 중생은 꿈속에 살면서 꿈인 줄 알지 못합니다. 꿈을 꿈으로 바로 본다면 그 사람은 꿈을 여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작방편(不作方便)이라. 거기에는 방편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환즉각(離幻卽覺)이라. 꿈을 여읜즉 바로 깨달은 것이라. 역무점차(亦無漸次)라. 점차가 뭡니까. 깨달음의 오십오 점차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바국다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속지 않으려면 회광반조(回光反照) 하라. 전면에 나타난 것을 보는 이놈이 무엇인지 돌이켜 살펴라. 무엇인고? 하고 깊이 의심 관(觀)을 하면 모든 마구니는 머리가 깨지고 흔적조차 없어진다” 했습니다.

‘切’ 자 하나로 화두들어야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주지)

2월 22일 첫째는 대의정(大疑情)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의 생명은 의정입니다. 화두는 외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일으키면 크게 깨치고 적게 일으키면 적게 깨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옛 조사들은 화두를 들 때 ‘간절 절(切)’자 하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며칠 굶은 사람이 밥생각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절실해 눈물이 날 정도가 돼야 비로소 화두를 제대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화두는 꾸준하게 쉼없이 들어야 합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쉼없이 꾸준하게 들어야 합니다. 옛 조사 스님들은 오뉴월에 닭들이 알을 품듯이 하라고 비유했습니다.

내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

고우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

2월 15일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연기(緣起)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깨친 법은 곧 연기이자 공이기에 무아인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이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에 위배되는 것은 허구이고, 허상입니다. 이를 철저히 깨는 것이 선종입니다. 선종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중도연기를 가장 정확히 계승한 종파입니다. 선은 다만 체험을 강조할 뿐, ‘본래 성불’임을 철저히 계승한 종파입니다.

부처님께서 깨치기 전에는 뭔가 얻을 게 있고 깨칠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치고 나니 내안에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얻을 것이 없었구나, 내 안에 모두 완성되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안거지요. 그래서 선어록에도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게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깨칠 것이 있고 얻을 게 있다는 공부는 그래서 잘못된 선 공부입니다. ‘본래 성불’임을 알고 공부 하는 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